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OPAC Display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Library of Congress

윤 정 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4.1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현황 |
| 2. 선행연구 | 4.2 OPAC의 특성과 규모 |
| 3. OPAC의 기능적 요건과 디스플레이의
중요성 | 5. 주요한 발견 |
| 3.1 OPAC의 기능성 | 5.1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비교:
업그레이드 이전과 이후 |
| 3.2 IFLA 'OPAC 디스플레이 지침'의
배경과 특성 | 5.2 국립중앙도서관 OPAC과 LC
OPAC의 비교 |
| 4.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비교 | 6. 맺음말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IFLA TF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에서 제시된 38개 권장사항들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OPAC 디스플레이를 비교·검토하여, 디스플레이에 반영되는 OPAC의 기능성 및 검색과 관련된 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본탐색'에서 coffin과 coffin, tristram의 두 명칭을 사용하여 기본탐색과 표목 디스플레이, 간략 디스플레이, 레코드 배열, 간략서지와 완전서지, 용어 및 명칭의 적절성, 링크, 전체 화면의 구성이라는 일곱 개 영역을 비교·분석하였다. LC OPAC에 비교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 디스플레이에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권장사항들을 참조하여 개선할 것이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특성들이 발견되었다: 간략 찾기의 지나친 단순화, 도움말의 복잡성과 모호성, 간략 디스플레이의 복잡성과 레코드 검색 근거 표시 결여, 도서관 전문용어의 사용, 목록 화면의 복잡성 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OPAC display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Library of Congress, based on the 'OPAC Display Guidelines(Draft)' published by IFLA. Discussed are such topics as a basic search process and the headings list, a brief display and the arrangement of bibliographic records, a brief record and a full record, use of terms and labels, link between records, and organization of screens for the OPAC display.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when compared with the LC's OPAC, the OPAC displa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hould be much improved by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OPAC Display Guidelines(Draft)'.

키워드: 국립중앙도서관 OPAC, 미국의회도서관 OPAC, 온라인목록, OPAC 디스플레이, IFLA 지침
OPAC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OPAC of the Library of Congress,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 OPAC Display, IFLA Guidelines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5일

1. 머리말

최근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접근을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형태와 속성이 다양해지고, 웹 상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alog, 이하 OPAC이라 함)의 기능성에 대한 기대 또한 변화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전자형태 정보자원이 확산됨에 따라 도서관 웹 사이트가 도서관이 보유하거나 원격에서 접근을 제공하는 자원의 많은 부분에 대한 “논리적 문(logical door)”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OPAC의 기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Jurewicz and Cutler 2003).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OPAC이 우선 자료의 유형이나 소재에 상관없이, 다양한 자원의 출처와 목적지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OPAC이 도서관에 관한, 혹은 도서관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목록, 전문 정보 데이터베이스, 저널 논문 데이터베이스, 전자자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네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해야 할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OPAC에서는 상이한 유형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이한 유형의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어야 하고, 탐색상황과 이용자 정보요구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류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색된 표목과 레코드 수의 수가 적든, 많은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요약, 분류 및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IFLA TF 2003).

OPAC에게 기대되는 주요한 시스템 기능은 최근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서 충분히 구현되어, OPAC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Breeding 2004). 그러나 기존의 OPAC들이 갖고 있는 기능적 특성, 용어, 및 도움말 장치의 범위나 복잡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IFLA TF 2003; Yee 1998), 현재 시스템에서 구현된 기능이 반드시 이용자의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UCLA Film and Television Archive의 목록부장인 Yee는 1980년대 초반 이래 발전한 OPAC이 전적으로 시스템 디자이너, 서지 네트워크와 정리 서비스 담당 사서들에 의하여 주관되었고, 이용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Yee 1998). 더욱이 1990년대 등장한 아마존(Amazon.com)과 같은 온라인 서점들의 목록 모델이 기존의 많은 도서관 온라인 목록의 약점을 드러나게 했고(Jurewicz and Cutler 2003), 미국 의회도서관의 지역 및 협력편목부(Regional & Cooperative Cataloging) 부장인 Byrum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정보추구자들은 이용자 친화적 웹 경험의 결과로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도록 웹 검색 엔진에 길들여져 있고, 전통적 도서관 OPAC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나 이용의 편의성 면에서 그 같은 장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다(Byrum 2005).

OPAC의 시스템적 기능성이 거의 균일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거론되는 이유들 가운데, OPAC 디스플레이의 문제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Yee와 Layne은 OPAC 설계에 관하여 논의할 때, 디스플레이는 가장 자주 무시되고 있는 주제이며, 실제로는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주장하였다(1998).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이하 IFLA

TF라고 함)는 OPAC이 Online Public Access Catalog라는 이름 그대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목록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과 구조, 이용방법과 디스플레이 등 모든 측면에서 일반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디스플레이가 이용하기 쉽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목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IFLA TF 2003).

본 연구에서는 각각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라고 함)의 OPAC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과연 IFLA에서 강조한 것과 같이 이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그러기 위하여 IFLA가 2003년 공개한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¹⁾'에서 제시된 38개 권장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들 두 도서관의 OPAC 디스플레이에 반영되는 기능성 및 검색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은 IFLA가 도서관들이 "현행 OPAC의 디스플레이를 개선하고, 목록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재설계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사용해야 할 지침"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현재 OPAC의 특성을 살펴보는 참조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보기에서 사용한 검색어들인 개인명 coffin과 coffin, tristram을 그대로 사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LC OPAC에서 기본탐색을

수행하고, 검색결과인 간략목록 및 개별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특정한 문제점에 대해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 권장사항 가운데 어떤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아울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LC와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OPAC의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국제도서관계에서 합의에 이른 권장사항을 갖고, 서로 다른 OPAC에서 동일한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찾도록 도와주는지, 찾은 자료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등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고 비교함으로써, OPAC 디스플레이에서 검색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고려되고, 보편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한 기능적 특성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OPAC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Cherry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Cherry 1992; Cherry et al. 1994; Cherry 1998; Luk 1996). Cherry 등은 1994년부터 3년간 수행한 연구에서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ARL)에 속한 University of Albert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등 열두 개 대학도

1)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2003.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OPAC) Displays* [Draft]: September 30, 2003 Draft for Worldwide Review. <Online> <Access 2005.5.5> <<http://www.ifla.org/VII/s13/guide/opacguide03.pdf>>

서관 OPAC의 완전 서지 디스플레이와 열 개의 웹 목록의 디스플레이를 평가하였다(Cherry 1998). 이 연구에서는 Hildreth(1982), Matthews(1986), Crawford(1986) 등이 문헌에서 제시한 디스플레이 지침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기능(desirable features)”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명칭, 텍스트, 지시정보 및 페이지 레이아웃의 네 개 색션을 나누어 모두 43개 항목을 포괄하는 133개의 질문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여러 OPAC과 웹 목록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약점들을 열거하였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관련된 서지 필드들을 함께 그룹으로 만들고, 각 그룹은 빈 줄이나 칸으로 분리하지 않음;
- 읽기를 돕도록 디스플레이 길이를 40-60자 정도로 한정하지 않아, 디스플레이가 길어짐;
- 정확하고, 충분하며 의미 있는 명칭(label)을 부여하지 않음;
- 명칭들을 오른쪽으로 정렬하여 데이터 디스플레이 필드의 시작 부분에 오게 하지 않음;
- 중복이나 반복되는 정보를 보여줌: 예를 들어, ‘저자’ 필드가 따로 있는 데도 ‘서명’ 필드에 동일한 저자 정보를 반복함;
- 원래 부호를 사용하여 분리되거나 띄어쓰도록 된 번호를 그대로 디스플레이 하지 않음: 예를 들어, ISBN 0-19-815896-3을 0198158963으로 표기함.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OPAC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주로 검색기능

과 인터페이스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OPAC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없었다. 이제환(1999)이 대학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하면서 서울대의 SOLARS, 포항공대의 LINNET, 부산대의 PULIP(Vintage LAS), 세 시스템이 구현하는 검색기능의 측면에서 OPAC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방식의 편이성과 검색방법의 다양성 두 부분으로 나누어, 편이성 면에서는 검색 대상자료 선정 기능, 신착자료 검색 기능, 색인의 열람 기능, 검색결과 디스플레이의 다양성, 및 검색자료의 대출상태 표시 기능이 있는가를 체크하였고, 다양성 면에서 단어(키워드)검색, 항목(데이터 필드) 검색, 연산자 이용한 조합검색, 제한검색, 절단검색, 전방일치검색, 저장 검색식에 의한 검색, 및 블록지정검색이 가능한가를 체크하였다. 이 논문은 품질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특정한 기능의 제공여부만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여, 그 기능의 질적 평가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검색결과 디스플레이의 다양성을 세 시스템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다양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각 시스템 간의 차이는 없는지 하는 등의 실질적인 품질 관련 사항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제환과 이현주(1998)는 서울대의 SOLARS OPAC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터페이스 편의성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OPAC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OPAC과 이용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며, OPAC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와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52명의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설문조사하여 OPAC 이용에 관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 임의로 선정한 8명의 SOLARS의 검색과정 관찰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SOLARS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이용자의 “느낌과 견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검색메뉴와 검색항목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 기능학습의 편이도, 기능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친밀도, 용어의 이해도, 기능표시 방법의 이해도, 전체 창 구성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 면에서 검색기능의 전반적 개선, 이용자 수준에 따른 검색방식의 차별화, 유사 기능의 통합, 불필요한 기능의 삭제 및 이용자 지원기능의 보안 등이 제안되었고, 디자인 면에서는 친밀감과 안정감을 주어 지속적인 탐색 유도하는 설계의 필요성, 시스템 용어를 이용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변경, 검색화면을 탐색기능에 따라 재구성, 이해하기 쉬운 아이콘 형태로 변경 및 재정렬, 그리고 검색화면의 축소와 전체적 화면 재정렬 등이 제안되었다.

서은경(2000)은 Cherry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캐나다의 대학도서관 OPAC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던 181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국내의 서울, 경기 지역 24개 대학도서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OPAC 기능성과 인터페이스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탐색 접근점, 탐색 기능,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기능, 이용자 지원 기능, 출력물 제어 기능, 화면 출력정보 기능,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 시스템 메시지 기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운영

통제 기능의 10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서은경은 이들 24개 대학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인 AIMS/AIMS2, SOLARS2, Vintage LAS, SLIMA-ST, Volcano 및 자관개발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디스플레이 기능은 실제로 여러 부문에 분산되어 평가되고 있지만, 대체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 면에서 다루어졌고, 표형식의 간략서지나 상세서지 제공 여부, 간략서지의 그룹화, 문헌간 구별성, 필드명 제공과 상세성 등 모두 25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그 가운데 청구번호, 주제분류번호, 저자, 서명, 총서명 등 열 개 필드로 하이퍼링크가 주어지고 있는지도 평가되었다.

상기한 국내 연구들은 이용자 집단의 수준이나 요구가 적어도 잘 정의된 대학도서관의 OPAC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다양하며, 동시에 광범한 이용자 집단을 갖는 공공도서관의 OPAC이나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민 전체 혹은 국제사회의 이용자들까지를 잠재적 이용자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에 대하여 그 디스플레이의 기능과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검색 기능 자체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 결정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언급하도록 한다. LC의 OPAC은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 OPAC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서의 관심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OPAC의 기능적 요건과 디스플레이의 중요성

3.1 OPAC의 기능성

특정한 도서관이 제공하는 OPAC의 기능성은 우선은 그 도서관이 사용하는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및 유럽의 상용 통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서는, 현재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기능성이 “완숙(full maturity)”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Breeding 2004),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OPAC의 기능성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발전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Breeding은 표준 OPAC이 제공하는 기능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 키워드 탐색
- 질의에서 불리안 연산자의 사용(AND, OR, NOT)
- 관계 연산자 사용(ADJACENT, NEAR)
- 상호참조, 적합성에 따른 결과 정렬
- 연대순 결과 정렬
- 저자, 주제 및 표제 브라우징
- 절단
- 도서관 요구에 맞춘(customized) 레코드와 색인 디스플레이
- 외부자원에 대한 링크
- 도서관 요구에 맞춘 ‘도움말(Help)’ 디스플레이,
- 원래 단어를 재입력 않고도 탐색 수정
- 결과 집합 내 탐색

- 현재 세션의 탐색 이력 보기와 불러오기
- 개별 도서관이나 소장처로 결과 제한 능력, 및
- 자료의 대출 상태 디스플레이.

Breeding은 이 같은 열여섯 개 항목의 기능에 대하여 현재 주요한 상용 통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인 Aleph 500, Horizon, Library.Solution, Millenium, Polaris, Unicorn, Virtua, Voyager의 일곱 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이들 시스템들이 모두 각각 한 두 개의 기능만을 제외하고는 전체 기능을 다 갖고 있음을 보고하였다(Breeding 2004).

이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OPAC에 구현되어 있는 한편, 이용자들은 실제로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록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Yee는 UCLA 과학기술도서관의 Layne과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현재의 OPAC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는 OPAC들이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동시에, 충분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both overly complex and not complex enough)”이라고 하였다(Yee and Layne 1998, p.1). 이들의 주장은 1990년대 말 이전까지 OPAC 혹은 목록의 이용에 대한 연구들을 리뷰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요지는 OPAC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용자들은 아무런 명령을 배울 필요가 없이, 단지 목록 카드 박스를 열고 여기저기 뒤적이기만 했던 것에 비해, 지금 OPAC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도록 요구되는 명령이 많고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OPAC에서 설

정해 놓은 디폴트에 상당히 의존하여, 기본적인 탐색만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탐색, 결합, 제한,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명령을 알도록 요구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강력하고 복잡한 탐색능력”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은 이 능력을 전문적으로 습득하고 또한 자신들이 탐색하는 레코드에 대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서와 같은 전문적 OPAC 이용자들뿐이고, 일반 이용자들에게 그 같은 지식과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이용자들에게는 OPAC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고급 기능의 강력함과 다양성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이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는가, 얼마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주장이다. IFLA TF가 OPAC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성숙”한 OPAC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적절한 디스플레이는 목록의 목표를 위한 기능적 요건의 양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용자를 위한 요구 충족이라는 목적에 공통적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3.2 IFLA 'OPAC 디스플레이 지침'의 배경과 특성

IFLA TF는 OPAC 디스플레이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목적은 목록이 이용하기 쉽게 하고, 이용자들이 목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OPAC 디스플레이의 권장사항이 널리 이행되면, 이용자는 한 도서관에서 습득한 목록 이용기술을 많은 다른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OPAC 디스플레이 지침'은 2005년 확정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IFLA 연례 컨퍼런스에서 IFLA 서지제어분과(Division of Bibliographic Control)는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를 구성하였다. 이 TF는 IFLA 서지제어분과에 속한 서지부회(Section on Bibliography), 목록부회(Section on Cataloguing), 분류와 색인 부회(Section on Classification and Indexing), 및 정보기술부회(Sec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 등의 회원들로 구성되었고, 목록부회가 선임부회 역할을 하였다. IFLA는 Martha Yee로 하여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Yee 1998), 1998년 11월 Yee의 보고서에 바탕을 둔 지침의 초안을 처음 공개하여 세계 도서관계로 하여금 리뷰하도록 하였다. 2003년 9월에는 그동안 수집된 의견을 참조하는 동시에 그 사이에 있었던 OPAC 디자인 시스템의 발전을 수용하고 FRBR의 주요 사항들을 반영한 수정초안을 다시 리뷰하도록 공개하였다(IFLA TF 2003).

이 지침 초안은 “목록정보의 디스플레이(the display of cataloguing in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OPAC 디스플레이가 목록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다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록의 기능과 목표는 1876년에 Charles Ammi Cutter가 처음 제시한 이래, 1961년 'Paris Principles'에서 설정된 목록의

원칙과 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었고, 목록의 형태가 책자에서, 카드로, 그리고 온라인 형태로 변화했어도, 그리고 목록을 통해서 접근하는 자료의 규모와 유형이 달라졌어도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Rubin 2000). 이것은 1990년대 말 IFLA가 도서관 목록을 탐색하고 이용할 때 수행하는 일반적인 과업과 관련된 '서지 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RBR)'을 정의할 때 천명한 목록의 역할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즉, 목록은 이용자가 진술한 탐색기준에 맞는 자료를 탐색하기 위하여,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개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술된 개체를 획득하거나, 이 개체에 접근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IFLA FRBR 1998). 이 지침 초안이 그와 같은 목록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 초안은 또한 사용된 인터페이스나 기술의 종류에 무관하게 어떤 유형의 목록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목록이 웹 기반을 포함하여, 문자 혹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s, GUI)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색깔, 아이콘, 버튼, 폴다운 메뉴 등과 같은 세부사항들에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는 여타 옵션들에 무관하게, 목록들이 제시해야 하는 디스플레이를 위해 일단의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의 OPAC 탐색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 이상의 서지 레코드,

하나 이상의 전거 레코드, 색인으로부터의 리스트에 모두 적용될 수 있게 한다:

- 전체 레코드 내 탐색(within-whole-record-searching),
- 전거제어된 특정 필드 탐색(specific-field-searching in a field with authority control),
- 전거제어 되지 않은 특정 필드 탐색(specific-field-searching in a field without authority control),
- 동시에 위에 언급된 유형들 혹은 하나 이상의 필드에서 탐색 결합.

이 지침 초안에서 제시된 권장사항들(recommendations)은 A. 이용자 요구(User Principle, 1-4조), B. 내용과 배열 원칙(Content and Arrangement Principle, 5-7조), 및 C. 표준화 원칙(Standardization Principle, 8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덟 개 조목 하에 모두 38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권장사항은 다음을 인정하는 구조 내에 기반하고 있다:

A. 이용자 요구의 최우선권(the overriding primacy of users needs):

B. 자료를 찾고, 식별하고, 선택하고 입수하는 데 있어서 레코드의 내용과 배열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the content and arrangement of records to finding, identifying, selecting, and obtaining items):

C. 정보내용과 구조를 위하여 인정된 국제표준을 따를 필요성(the requirement to follow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information content and structure).

한편 IFLA TF는 현재 기존의 시스템 및/혹은 목록들이 디스플레이 지침의 모든 권장사항들을 따를 능력이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IFLA의 FRBR 모델에서 제시한 저작(work),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및 개별자료(item)의 계층구조를 수용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초기 구현 단계이거나 개발 중이므로, 이 같은 권장사항들이 아직은 상당히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OPAC들에서 중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향후에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지침을 구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2005년 IFLA가 공개한 '통합 디지털 도서관 디자인과 구축 지침'에서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OPAC은 다양한 정보자원과 포맷의 콘텐츠가 조직되어야 하고,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에 따라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athie et al. 2005).

4.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비교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할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은 기관의 사명, 역사, 규모, 국내 및 국제 커뮤니티에서의 위상 등의 모든 측면에서 거의 공통점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 한국과 미국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자국의 주요한 정보자원을 수집 및 보존

하여 접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등하다. 본 절에서는 간략히 이 기관들의 현황과 OPAC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만 언급하도록 한다.

4.1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현황

미국의회도서관은 그 사명을 “그 자원을 미국국회와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쓸모 있게 만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식과 창의성의 보편적 컬렉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²⁾ 한편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문헌의 총집산처로서 문화유산은 물론 당대의 지식산물인 국가문헌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³⁾ 두 기관 모두 국가의 대표도서관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그 역사, 직원, 예산, 장서 및 서비스의 규모,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등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제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장서의 규모만 보아도 LC는 2006년 현재 1억 3천만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2천 9백만 권의 단행본 및 인쇄 자료, 270만 건의 리코딩 자료, 1,200만 장의 사진, 5,800만 건의 고문서 자료등을 포함하고 있다. LC의 전체 장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자료로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약 460여개의 언어로 되어 있고, 1962년 이후 해외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어,⁴⁾ 가히 규모와 내용 면에서 국제적 “보편적

2) U.S. Library of Congress. 2006. "Mission, Strategic Plan." <<http://www.loc.gov/about/mission/>> <online> <Access 2006.2.12>

3) 국립중앙도서관. 2006. "도서관 소개: 자료현황." <<http://www.nl.go.kr>> <online> <Access 2006.2.12>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2006년 1월 31일 현재 570여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그 가운데 370여만 권이 국내서이고, 4백여 만권이 납본을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국보 제148호인 <十七史纂古今通要>와 같은 귀중서가 포함되어 있는 등 26만여 종의 고서, 93만여 종의 비도서자료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국내 간행 단행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이 상이한 특성을 지닌 도서관들이라고 할지라도 월드 와이드 웹(WWW)이라는 국제화되고 보편화된 서비스 공간에서는 OPAC을 통해 공평하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즉, 국립중앙도서관과 LC가 그 장서의 규모와 구성, 깊이와는 무관하게, 자관의 OPAC을 통해 적어도 웹상에서만은 동등하게 국제적으로 평준화된 이용자 집단에 공개된 접근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능성과 디스플레이 능력을 지닌 OPAC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4.2 OPAC의 특성과 규모

LC의 온라인 목록(<http://catalog.loc.gov>)은 2006년 2월 현재 15백만 건의 서지 레코드를 수록하고 있고, 이들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컴퓨터 파일, 고문서, 지도자료, 악보, 음악녹음자

료 및 시각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록은 상호참조와 범위주기(scope notes)와 같은 이용자용 탐색도구들을 같이 디스플레이하고 있고, 모든 형태, 언어, 목록시기, 처리 및 대출상태에 무관하게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안에 레코드들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 목록에는 이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입한 320만 건의 레코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1898년부터 1980년대 사이에 목록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레코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코드들은 최근의 목록표준과 현행 언어 및 용례에 맞도록 수정되었고, [from old catalog]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그 표목이 현재의 LC 목록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LC 목록에서 서지 레코드에 전거제어된 이름이나 주제의 전거 레코드로 바로 갈 수는 없고, 전거 데이터베이스(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http://authorities.loc.gov>)로 가서 각각의 전거 레코드들을 찾도록 하고 있다. 목록 자체에서는 '기본탐색(Basic Search)' 화면에서 'Author/Creator Browse' 혹은 'Subject Browse'를 사용함으로써 생성된 표목 리스트(Headings List)로부터 접근될 수 있는 [MORE INFO]라는 아이콘으로 표시된 상호참조나 내용주기를 통해서 전거 레코드로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LC 목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⁵⁾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료 찾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4) U.S. Library of Congress, 2006. "Fascinating Facts." <<http://www.loc.gov/about/facts.html/>> <online> <Access 2006.2.12>

5)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Help Pages." <<http://catalog.loc.gov/help/contents.htm>> <online> <Access 2006.2.12>

(<http://www.loc.gov>). 그러나 이 목록이 수록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자료 찾기 -- 도움말 -- 간략 찾기 화면'의 설명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및 외국자료의 목록정보를 표제(제목)/논문명, 키워드, 저자명, 발행자/대학명, 목차, 초록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06년 1월 31일 현재 5,722,527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 현황'에 근거하여, 그리고 각 자료마다 서지 레코드가 만들어져 있다는 전체 하에 서지 레코드의 수를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OPC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지 레코드 건수를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목록 상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다.

'도서관 소개 -- 도서관 업무 -- 도서관 정보화' 페이지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항목에서 주요자료 원문정보 DB 구축, 국가자료 목차정보 DB 구축, 기사색인 및 초록정보 DB 구축, 국가자료 종합목록 DB 구축, 시각장애인을 위한 종합목록 및 원문 DB 구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자료 종합목록 DB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도서관이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활용하여 "전국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도서관들은 목록 데이터를 내려받고 올리기를 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및 국가자료목록정보 공유체제가

보다 확고하게 기반 조성"한다는 목적을 갖는 KOLISNET을 말한다. KOLISNET은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 하단의 '주요 시스템' 메뉴에서 '국가자료 공동목록 시스템(KOLIS-NET)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고 있는 전거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서의 일반서와 아동서에 나타나는 개인명 및 중국서, 일본서의 개인명과 약간의 단체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 12월 현재 11만 건의 전거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5. 주요한 발견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OPAC과 LC OPAC의 디스플레이의 기본탐색과 표목 디스플레이, 간략 디스플레이, 레코드 배열, 간략서지와 완전서지, 용어 및 명칭의 적절성, 링크 전체 화면의 구성이라는 일곱 개 영역을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된 2006년 2월 8일과 2월 13일 사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엔진 업그레이드가 수행됨에 따라, 몇 가지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업그레이드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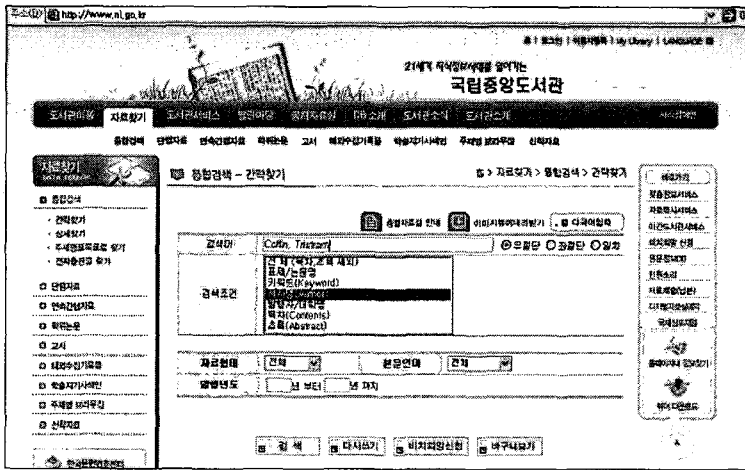
5.1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비교: 업그레이드 이전과 이후

6)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자료 종합목록'과 '국가자료 공동목록'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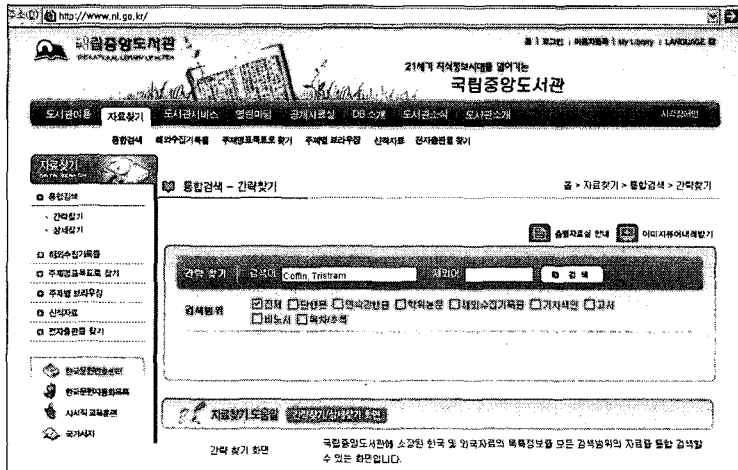
• '간략찾기' 검색 화면

〈그림 1〉과 〈그림 2〉는 국립중앙도서관 OPAC 업그레이드 이전(2006.2.8)과 이후(2006.2.13)의 검색화면을 각각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는 '자료찾기 -- 통합검색 -- 간략찾기' 화면은 '검색조건' 항목에서 표제/논문명, 키워드, 저자

명, 발행자, 목차, 초록 등의 필드를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색인에서 찾을 것인지를 제한할 수 있었다. '저자명' 필드에서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보기에서 사용된 이름인 Coffin, Tristram을 탐색했을 때, 간략목록에 1개의 레코드(표제: *American folklores*)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OPAC '통합검색 -- 간략찾기': 저자명 'Coffin, Tristram' 검색(2006.2.8)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OPAC: '통합검색 -- 간략찾기'(2006.2.13)

만이 검색되었다. 상단 '자료찾기' 메뉴에서 통합검색, 단행자료, 연속간행자료, 학위논문, 고서, 해외수집기록물, 학술지기사색인, 주제명 브라우징, 신착자료의 아홉 개 버튼을 제공하고, 왼쪽의 메뉴는 '통합검색'에 '간략찾기', '상세찾기', '주제명표목표 찾기', '전자출판물 찾기'의 네 가지 서브옵션이 있음을 보여준다. 검색어는 우절단, 좌절단, 일치의 세 가지 검색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고, 검색조건, 자료형태, 본문언어, 및 발행년도로 검색 필드를 제한할 수 있다.

새로운 검색화면은 <그림 2>와 같이 상당히 단순하게 수정되었다. 검색창의 상단 '자료찾기' 메뉴에서는 통합검색, 해외수집기록물, 주제명표목표 찾기, 주제별 브라우징, 신착자료, 전자출판물 찾기의 다섯 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왼쪽의 메뉴는 여기에서 선택한 옵션인 '통합검색'에 '간략찾기'와 '상세찾기'의 두 가지 서브옵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색어' 창 옆에는 '제외어' 창이 주어져 있고, '자료찾기 도움말'에서는 '제외어'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 자료 중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어로 입력합니다. 제외어는 반드시 검색어가 입력된 경우 검색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제외하라고 하는지 참조할 수 있는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판단하여 제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전에 제공되었던 몇 가지 검색조건들이 없어진 대신, 추가된 '검색범위'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해외수집기록물, 기사색인, 고서, 비도서, 목차/초록 등의 자료 형태 및 콘텐츠 특성에 따라 검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단행본, 연속

간행물 등 자료 형태는 이전에 '자료형태'의 제한 조건으로 주어졌던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Coffin, Tristram에 대한 탐색 결과는 검색실패(Zero result)로서 '입력된 키워드로의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간략찾기' 화면이 단순해지면서 '도움말' 역시 간략해졌다. 이전에 '간략찾기 화면', '검색항목의 선택', '쪽당 출력 건수', '수록정보', '표지출력', '소장처', '자료이용 하는 곳' 및 '버튼 설명'의 여덟 개 항목을 주고 '검색항목의 선택' 아래 검색방식(우절단, 좌절단, 일치), 자료형태, 표제(제목/논문명), 키워드, 저자명, 발행자, 목차, 초록 등의 각 옵션에 대하여 다소 장황하고 모호한 '도움말'을 주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검색화면의 '도움말'은 '간략찾기 화면', '검색어', '검색범위' 및 '제한어'의 네 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다.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은 1.5 '도움말 기능을 제공하라'는 항목에서 융통성 있는 "'헬프' 스크린을 제공하고, 상이한 이용자 그룹, 상이한 이용자 요구, 상이한 인터페이스 등을 수용하라. 각 도움말스크린은 예를 들어, 이용자가 탐색하고 싶은 필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검색 실패 결과(Zero result)에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는 등과 같이,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예러 메시지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이 검색화면 및 이후의 검색과정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제시하는 '도움말'의 내용이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자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단순화 되었다'는 이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 간략목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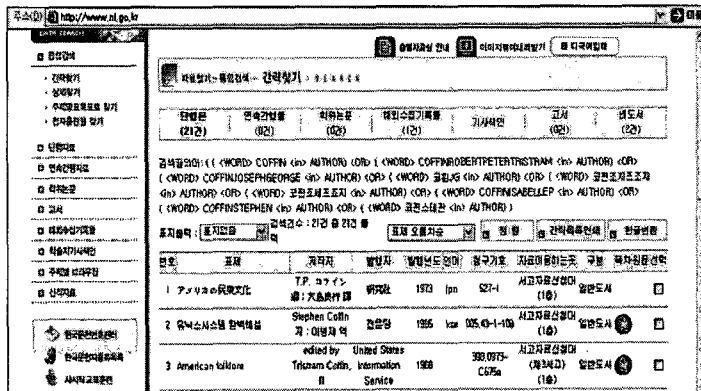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 업그레이드에서 한 가지 크게 개선된 것은 검색결과로 나온 간략목록과 서지 레코드 화면에서 검색질의어를 제시하는 방법이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전 (2006.2.8)에 저자로 제한하여 'Coffin'을 탐색하였을 때, 화면에는 검색질의어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그림 3 참조):

검색질의어: ((〈WORD〉 COFFIN 〈in〉 AUTHOR) OR(〈WORD〉 COFFINROBERTPETERTRISTRAM 〈in〉 AUTHOR) OR(〈WORD〉 COFFINJOSEPHGEORGE 〈in〉 AUTHOR) OR(〈WORD〉 코핀J.G. 〈in〉 AUTHOR) OR(〈WORD〉 코핀조세프조지 〈in〉 AUTHOR) OR(〈WORD〉 COFFINSABELLEP 〈in〉 AUTHOR) OR(〈WORD〉 COFFINSTEPHEN 〈in〉 AUTHOR) OR(〈WORD〉 코핀스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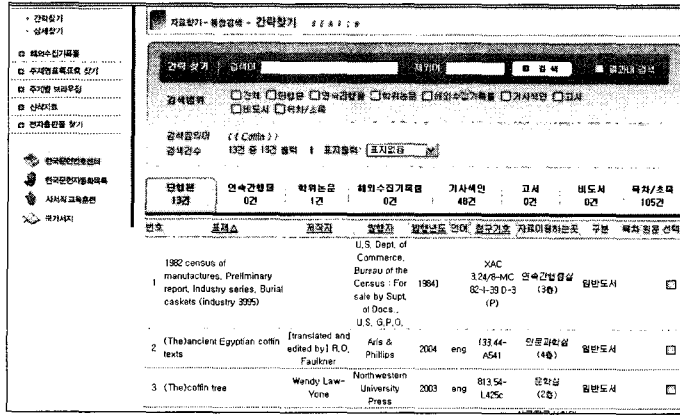
판 〈in〉 AUTHOR))(2006.2.8)

검색질의어로서 'Coffin'만을 입력한 이용자가 이 같은 형태로, 또한 질의어가 모두 대문자로 변환되고, 띄어쓰기조차 무시된 채로 제시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인가를 추측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그림 1>에서 Coffin, Tristram을 탐색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질의어:(〈WORD〉 COFFINTRISTRAM 〈in〉 AUTHOR)'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한 사람의 성과 이름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식별이 가능하였던 것에 비해,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검색질의어를 보여준 것은 분명 이용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림 4>는 검색질의어를 결과화면에서 '검색질의어:(Coffin)'의 형태로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검색질의어를 입력한 형태 그대로이다. 이 같은 변화는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1.4항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한 대로 디스플레이 하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내용에서 '목록자가 입력한 대로 구두점을



<그림 3> '통합검색 -- 간략찾기': 저자 'Coffin' 검색결과(2006.2.8)



〈그림 4〉 '통합검색 -- 간략찾기': 저자 'Coffin' 검색결과(2006.2.13)

보존하고, 대소문자 대로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하라. 이것은 의미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고, 정렬된 요소들을 식별하는데 유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내용과 비로소 일치한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지침을 따라 이처럼 수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검색 결과

동일한 검색질의어에 대한 검색결과는 업그레이드 이전과 이후에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검색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검색 성능 자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coffin'을 탐색하였을 때 '저자명'으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건의 레코드가 검색된 것에 반하여 〈그림 3〉, 이후에는 검색조건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건만이 검색되었다(그림 4). 〈그림 4〉의 간략목록은(*The ancient Egyptian coffin text*(레코드 번호2),(*The coffin tree*(번호3), *King Coffin*(번호4), 관을 떨어뜨리지 마라(번호5), 그리스 관의 비밀(번호6-9), 디미

티리오스의 관(번호10-11), 세 개의 관(번호 12), 중성자 방사화 분석에 의한 5세기 용관의 산지 추정 연구(번호13)과 같은 표제를 지닌 레코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열 세 건의 레코드 모두 coffin은 표제, 주제 혹은 주기 필드에서 검색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검색된 21건과는 전혀 겹치지 않는 레코드들이다.

한편 새로운 '간략찾기' 검색으로 색인을 제한할 수 없었으므로 '자료찾기 -- 통합검색 -- 상세찾기'에서 저자명 필드로 제한하여 Coffin, Tristram을 탐색한 결과는 역시 '입력된 키워드로의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로 나타나, 결국 이전에 검색된 레코드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전에 얻은 결과를 토대로 Tristram Coffin의 편저인 *American folklore*를 '자료찾기 -- 통합검색 -- 상세찾기'의 표제/논문명 필드에서 탐색한 결과 또한 'Zero result'였다. 반면에 '간략찾기'에서 동일한 서명을 탐색한 결과는 이 책을 포함한 17건의 서지 레코드를 가져왔다.

분명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상세찾기'를 통해 찾는 데 실패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다만 2월 8일 도서관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국가자료공동목록 시스템(KOLIS-NET) 서비스를 2월 9일(목) 18:00시부터 2월 10일(금) 09:00까지 중단하고,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고(도서관소식 -- 공지사항 154), 또한 2월 12일(일) 18:00시부터 2월 13일(월) 12:00까지 '홈페이지 자료검색 엔진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도서관소식 -- 공지사항 155)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직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는 아닌가 하고 추정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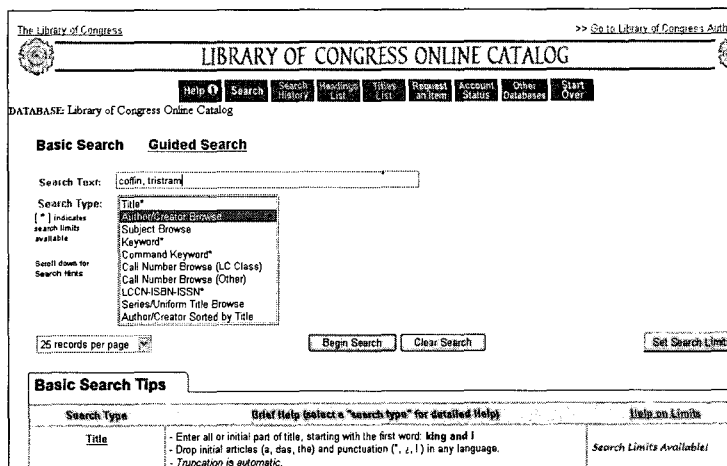
본 연구가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디스플레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침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엔진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그 덕분에 OPAC 디스플레이의 변경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런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OPAC과 LC OPAC의 비교

• 기본탐색과 표목 디스플레이

LC의 OPAC에서 '기본탐색(Basic Search)'은 표제, 저자/창작자(Author/Creator Browse), 주제, 청구기호, LCCN/ISSN/ISBN 및 키워드 탐색을 허용하고, 탐색제한은 표제와 키워드 탐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그림 5). 기본탐색에서 '저자/창작자 브라우즈'로 coffin, tristran을 탐색한 결과는 이름 색인(표목 리스트)에서 해당 이름 엔트리가 위치한 곳을 보여준다. 브라우즈 탐색은 보통은 특정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탐색하는 단어 혹은 단어들 이 처음 나타나는 색인의 위치로 데려다 주는 것이다(Fritz and Fritz 2003). LC의 OPAC은 탐색어를 표목 리스트의 맨 위에 배치하고, 그 결과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은 업그레이드 이전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5> 미국의회도서관 OPAC 기본탐색: 저자/창작자 브라우즈 'coffin, tristran'

The screenshot shows the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like 'Help', 'New Search', 'Search history', 'Headings list', 'Usage List', 'Request an Item', 'Account Status', 'Other Databases', and 'Start Over'. Below this, it indicates the database i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and the search criteria is 'Author/Creator Browse = coffin, tristram'.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as a table with 7 entries, each showing a heading and its type (personal name).

#	His	Headings (Select to View Titles)	Type of Heading
[1]	1	Coffin, Tristram, 1838?-1924. [from old catalog]	personal name
[2]	7	Coffin, Tristram, 1912-	personal name
[3]	24	Coffin, Tristram Potter, 1922-	personal name
[4]	1	Coffin, Velma (Rowe), 1890- [from old catalog]	personal name
[5]	3	Coffin, Victor, 1864-	personal name
[6]	3	Coffin, Victor, 1864- [from old catalog]	personal name
[7]	2	Coffin, Victor, [from old catalog]	personal name

〈그림 6〉 미국의회도서관 OPAC: 이름 표목 리스트: 'coffin, tristram'

의 OPAC에서 저자명 coffin으로 탐색한 결과인 서지 레코드의 간략목록이다. Coffin이라는 이름을 포함하는 Tristram Coffin, T.P.Coffin, Stephen Coffin, Joseph George Coffin 등의 여러 저자가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지만, 특정한 어느 저자의 어떤 저작을 선택할지는 간략 목록으로 제공된 서지 레코드 전체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저자명 coffin, tristram의 탐색은 하나의 서지 레코드만을 검색했으므로 이름 표목 리스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의 '간략찾기'는 디폴트가 키워드 탐색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간략목록으로 바로 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LC OPAC에서 동일한 탐색은 〈그림 6〉과 같이 이름 표목 리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준다. LC OPAC의 '기본탐색'에서 저자 탐색은 브라우저 탐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 coffin, tristram을 키워드로 찾고 싶으면 '고급탐색(Guided Search)'에서 '이름: 개인명(Name: Personal Name(KPNC))'으로 탐색하면 되고, 그 결과는 Robert P. Tristram Coffin, Mark Tristram Coffin, Tristram Coffin,

Tristram Potter Coffin 등의 저작 94건의 서지 레코드를 포함한 간략 디스플레이로 나타난다.

Yee와 Layne은 만약에 탐색이 하나 이상의 표목 혹은 구분(subdivision)을 갖는 표목에 일치할 경우, 그 결과는 일치된 서지 레코드들의 리스트보다는 일치된 표목의 리스트를 먼저 디스플레이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일치된 표목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잘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998, p.89). 그러나 목록에서 검색 디폴트를 무엇으로 설정했는가에 따라 이 과정은 달라지게 되므로, 특정한 방식의 우열을 논하기는 어렵다.

• 레코드의 배열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은 '6. 여러 레코드들이 검색될 때 무작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순서로 레코드들을 디스플레이 하라'고 하며, 그 가운데 6.3항은 '모든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표목의 첫째 요소에 의하여 표목을 배열하라.(만약에 있으면) 표목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일한 첫째 요소로 시작하는 표목들을 하부배열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라. 추가적 요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간략찾기'에서 coffin의 검색결과인 간략목록에 포함된 13건의 레코드는 일단 양서와 동서의 순으로 나누고, 각 그룹 안에서 표제의 오름차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결과를 이용자가 정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그림 4).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에 '표제의 오름차순' 디폴트로 디스플레이하며 이용자로 하여금 정렬할 수 있는 옵션을 주었던 것에서 오히려 퇴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략찾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면서 상기한 6.2항과 같은 제안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3>에서 동서, 양서 순으로 배열된 것이 <그림 4>에서는 양서, 동서 순으로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다. 둘 다 검색질의어는 영어인 coffin이므로, 검색질의어에 일치하는 언어로 된 레코드들을 먼저 배열하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검색어의 출처, 즉, 추출한 필드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일단은 배열 일관

성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의 예도 역시 6.1항의 제안을 고려해야 할 경우이다. 6.1항은 '결과를 의미 있는 배열로 디스플레이 하라'고 하며, 그 세부 내용에서는 '만약 탐색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된 레코드를 검색하면, 인터페이스의 언어에 기반한 배열순서로 레코드를 디스플레이 하라...'고 하였다. <그림 3>에 보이는 리스트는 검색된 21건의 레코드 가운데 단지 세 건만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 일본어, 한국어, 영어의 세 가지 언어로 된 레코드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에 따르면 이 OPAC의 '인터페이스 언어'이자 사용자들의 공용어인 한국어로 된 자료, 즉, '유닉스 시스템 완벽 해설'이 맨 위에 첫 번째 레코드로서 디스플레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어 자료 혹은 영어 자료가 오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정렬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자료를 모두 포함한 동서와 양서로 구별하여 배열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크게 문

#	Name Heading	Name: Main Author, Creator, etc.	Full Title	Date
<input type="checkbox"/> [1]	Coffin, Tristram Potter, 1922-		Folklore in America : tales, songs, superstitions, proverbs, riddles, games, folk drama and folk festivals. Selected and edited by Tristram P. Coffin and Herwig Cohen from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966
SELECT TITLE FOR HOLDINGS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2]	Coffin, Tristram Potter, 1922-		Folklore in America : tales, songs, superstitions, proverbs, riddles, games, folk drama, and folk festivals, with 17 folk melodies / selected and edited by Tristram P. Coffin and Herwig Cohen from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986
SELECT TITLE FOR HOLDINGS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3]	Coffin, Tristram Potter, 1922-		Folklore of American holidays : a compilation of more than 600 beliefs, legends, superstitions, proverbs, riddles, poems, songs, dances, games, plays, pageants, fairs, foods, and processions associated with over 140 American calendar customs and festivals.	1999

<그림 7> 미국의회도서관 OPAC: 간략 디스플레이(일부): 'coffin, tristram'

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LC 목록은 저자명으로 탐색한 결과인 표제 리스트(Title List), 즉,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일단 검색질의어인 이름표목으로 정렬한 후, 다시 그 이름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 리스트를 구분하여 표제의 알파벳순으로 정렬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7>에서는 검색된 서지 레코드 디스플레이의 일부만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검색된 24건의 레코드들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정렬된다. 레코드1-7은 서명기본기입(title main entry, 130 혹은 245 필드)이고 Tristram Coffin이 Added entry(700 필드)로 나타난 레코드, 레코드 8-21은 Tristram Coffin이 인명기본기입(100 필드)으로 된 레코드, 그리고 레코드 22-24는 다른 저자가 기본기입이며 Coffin은 Added entry(700 필드)에 나타난 레코드들이다. 이 레코드들을 이용자들이 완전표제명, 주저자/창작자, 연도(오름차순), 연도(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

• 간략 디스플레이

간략 디스플레이는 “논리적 순서와 제한된 수의 속성들로, 단일 표목 아래 모든 서지나 전거 레코드들을, 혹은 서지 레코드나 전거 레코드들의 키워드 탐색에 일치된 모든 서지나 전거 레코드들을 열거하는 디스플레이”라고 정의된다(IFLA TF 2003). 간략 디스플레이 혹은 간략목록이 탐색자들로 하여금 그 목록을 보고, 특정한 자료에 대하여 보다 더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클릭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서관은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서지요소들이 디스플레이 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보통은 일단 완전 서지 레코드에 도달한 후에야, 그들이 실제로 그 자료를 요청할지를 결정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간략 디스플레이에 포함될 정보의 내용은 완전 서지 레코드의 것과는 달라질 수 있다(Wilson 2004).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은 간략목록 혹은 간략 디스플레이에 관하여 5.3 ‘간략 디스플레이로 레코드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레코드들의 간략 디스플레이는 이용자가 세트의 요소들 사이에 구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세트의 각 요소에 검색된 레코드 수를 추가하고, 디스플레이에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요소들은 탐색의 속성 및 검색된 자료의 유형에 의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간략목록은 레코드 번호와 더불어 표제,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도, 언어,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 곳, 구분, 목차, 원문을 포함하는 열 개 필드,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을 주고 있어, 모두 열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다. 또한 <그림 4>에 보는 것처럼 이들 필드가 열거된 상단에 검색된 자료의 형태별로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해외수집기록물, 기사색인, 고서, 비도서로 구분하여 해당 자료 검색건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필드들은 변경 이전에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따라서 여기에서 간략목록의 실질적인 간략성 혹은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간략목록은 많은 필드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검색질의어가 이 필드들의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그림 4>에서 첫 번째 레코드의 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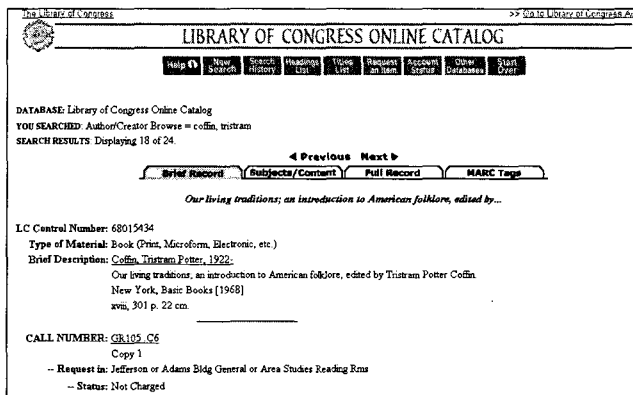
는 1982 *Census of manufactures. Preliminary report. Industry series. Burial caskets(industry 3995)*로 이 레코드가 검색된 근거를 간략목록상의 정보만 갖고는 알 수 없다.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1.2항은 '어떻게 디스플레이에 도달했는지 이용자들에게 명백하게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색결과인 디스플레이에서 탐색용어를 맥락 안에 보여주고 하이라이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강조해 주라고 하였는데, 이 간략목록은 아무런 표시를 해주지 않고 있다. 물론 제목에서 casket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coffin이 검색된 근거는 'Marc 보기'로 가서 MARC 레코드의 650 0 \$a Coffin industry \$z United States \$x Statistics 필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물론 MARC 레코드에서는 검색 근거가 된 이 필드에 아무런 표시를 해주지 않고 있다.

LC OPAC의 간략 디스플레이는 그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보인다. 표제 리스트(Title List)는

레코드 번호와 선택 칸을 제외하고는 이름표목, 이름: 주저자, 창작자 등, 완전표제, 연도의 네 개 필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전에 주어진 이름 표목 리스트는 레코드 번호(해당 표목이 관련된) 서지 레코드 건수, 표목 형태, 표목의 유형이라는 네 개의 필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대학연구도서관 컨소시엄(Consortium of University Research Libraries, CURL)의 통합목록인 COPAC이 간략 디스플레이로 레코드 번호, 저자명, 표제, 발행연도의 네 개 필드만 보여주는 것도 비슷한 예이다(Cousins 1997). LC OPAC은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네 개의 필드 정보에 근거하여 선택한 레코드에 대하여 간략 레코드(Brief Record)와 완전 레코드(Full Record)를 둘 다 제공하므로, 이용자는 얼마나 완전한, 혹은 상세한 서지정보를 볼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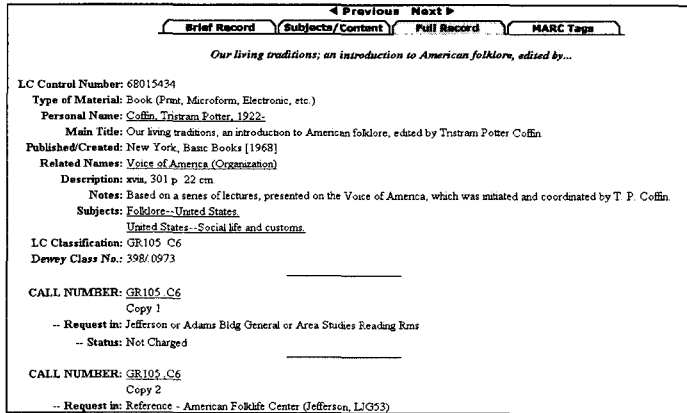
• 간략서지와 완전서지

LC OPAC의 간략 레코드는 <그림 8>에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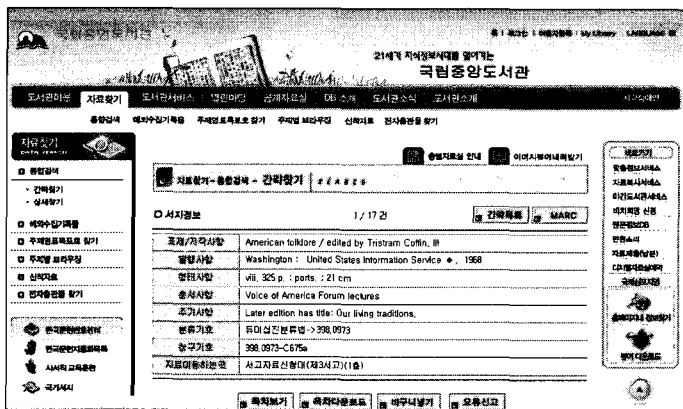


<그림 8> 미국의회도서관 OPAC: 간략 서지 레코드 'Our living traditions'

7) 국립중앙도서관은 기계가독형 목록(Machine Readable Cataloging)이라는 의미의 두문자로 구성된 고유명사인 MARC가 아닌 'Marc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9〉 미국의회도서관 OPAC: 완전 서지 레코드 'Our living traditions'



〈그림 10〉 검색결과: American folklore(Tristram Coffin 편) 서지 레코드(2006.2.13)

는 바와 같이 LC 제어번호, 자료유형, 간략기술(Brief description) 및 청구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간략기술 부분은 기본표목, 표제 및 저작사항(245 필드), 발행사항(260 필드) 및 형태사항(300 필드)을 ISBD 형식으로 기술해 주고 있으며, 각 필드에 대해 명칭(label)을 붙여주지 않고 있다. 청구기호는 각 카피의 청구기호, 소재(Request in), 및 대출상태(Statu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에 비해 〈그림 9〉의 완전

레코드는 매우 상세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완전 레코드는 LC 제어번호, 자료유형, 개인명, 주표제(Main title), 출판/창작(Published/Created), 관련된 이름(Related Names), 기술(Description), 주기, 주제, LC 분류번호, 듀어 분류번호 및 청구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 '5.8 서지 레코드의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 내용과 구조' 항목은 완전서지에 어떤 데이터를 포함해야 할

것인가 언급하고 있다. '디폴트 단일-레코드 디스플레이에는 단일 서지 레코드의 완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코드화(coded) 및 비코드화(non-coded) 필드들'을 포함하고, ISBD로 규정된 모든 필드들을 포함하라고 하였다. 또한 '보통 디폴트로 ISBD 포맷으로 디스플레이 되면서, 각 요소에 내부 데이터를 갖는 명칭이 부여된(labeled)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라고 제안하였다. LC OPAC의 간략 레코드와 완전 레코드 모두 그 같은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필드의 명칭들(label)이 과연 이용자의 측면에서 적절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고, 다음 절에서 논할 바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은 '간략서지'와 '완전서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검색 결과 서지정보는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표제/저작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분류기호, 청구기호 및 자료 이용하는 곳이라는 필드 명칭을 사용하며, 각 서브필드 요소의 정보까지 다 제공하고 있다. '5.7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 포맷' 항목에서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원에 접근/입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목록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이 모든 레코드에 이 같이 간략서지 이상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류기호 말고는 주제 표목 등의 주제 관련 정보를 보여주지 않아, 특정한 서지 레코드 탐색 이후 주제검색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 용어 및 명칭(label)의 적절성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 1.6항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전문용어와 표준에 익숙하다고 추측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강조점은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 메뉴, 명칭, 구두점, 레코드 정렬 및 도움말스크린에서 도서관 전문용어와 표준에 익숙하다고 추측하지 말라. 전문용어(jargon)를 회피하라'고 강조한 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Yee와 Layne은 이용자들 가운데 누가 예를 들어 material, other entries, corporate author와 같은 용어들을 포함하여 "불가해한 서지용어(more arcane bibliographic vocabulary)"를 이해하겠는가고 하였다. 더욱이, 예를 들어, 저자(Author)라는 용어로 화가, 배우, 음악가, 회의, 법정 판례의 피고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처럼, 특정한 필드에 나타날 수도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간략하고, 명확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용어들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칭을 붙인 디스플레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Yee and Layne 1998, p.113).

LC OPAC의 서지 레코드에서 필드 명칭들이 적절한가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 레코드의 필드 명칭들 가운데 '기술(Description)'은 형태사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간략 레코드에서 '간략기술(Brief description)'이라는 명칭으로 표제/저작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연 적절한 명칭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검색화면 상단의 메뉴에 있는 '표목 리스트(Headings List)'와 같은 옵션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은 아닐 수도 있다.

도서관 전문용어 혹은 서지용어의 사용 문제

는 국립중앙도서관 OPAC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이전의 '간략찾기' 검색창 오른쪽에 제시된 '우절단, 좌절단, 일치'는 도서관 전문용어의 대표적 사례로서, 새로운 '간략찾기' 화면에서 제거된 것이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당시의 '자료찾기 -- 도움말 -- 간략찾기/상세찾기 화면'은 [검색방식(우절단, 좌절단, 일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명과 키워드 검색의 경우에 기존 우절단 방식에 좌절단, 일치검색을 지원합니다. 검색항목에 서명이나 키워드를 선택하고 검색할 경우 선택된 검색방식에 맞춰서 검색을 시도합니다. 좌절단, 일치검색은 표제, 키워드에만 적용됩니다.”(2005.11.28)

이전에 이 같은 '도움말'을 읽고 이용자들이 우절단, 좌절단, 일치 검색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도록 기대했던 것에 비해, 새로운 '통합검색 -- 상세찾기'의 '도움말'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고, 비교적 그전보다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명과 키워드 검색의 경우에 기존 우절단 방식에 좌절단, 일치검색을 지원합니다. 검색항목에 서명이나 키워드를 선택하고 검색할 경우 선택된 검색방식에 맞춰서 검색을 시도합니다.

- [우절단] 검색은 검색어의 오른쪽, 즉 검색어 뒷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 [좌절단] 검색은 검색어의 왼쪽, 즉 검색어의 앞부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 [일치] 검색은 검색어와 일치하는 결과만을 보여줍니다.”(2006.2.14)

예를 들어, '우절단'에서 '*경리', '좌절단'에서 '박경*', '일치'에서 '박경리'와 같은 보기를 들어주었다더라면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은 '도움말 (Help)'의 적절성에 대한 것은 따로 논의할 사항이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서지 레코드에 사용된 표제/저작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분류기호, 청구기호라는 필드 명칭들은 한국목록규칙(KCR)에서 사용한 표준형태이다. 이처럼 도서관계에서 표준화된 전문용어, 혹은 메뉴에 포함된 '주제명표목표'와 같은 용어가 일반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또한 '자료찾기 -- 통합검색 -- 상세찾기' 화면에서 판종유형/판종, CIP 제어번호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지, 더욱이 '발행자/대학명'과 '한국대학명' 필드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실제로 재고해야 할 많은 용어상의 문제들이 있다. 물론 이 목록이 사서들만을 잠재적 이용자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 것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 링크

Ortiz-Repiso와 Moscoso는 OPAC 자체가 진정한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노드와 링크 구조의 생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저자, 주제, 표제 사이의 링크가 존재하는 경우에조차, 예를 들

어 동일한 저자의 책, 주제, 표제에서 유사한 단어들과 같이 단순한 일치(mere matching) 이상의 링킹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하였다(재인용: Wilson 2004, p.64). 그러나 최근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에서 OPAC 모듈은 외부자원에 대한 링크까지를 제공하고 있고(Breeding 2004),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은 '7.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된 정보의 부분들로부터 관련된 정보로 네비게이션 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와 같이 디스플레이 된 정보에서 관련된 정보로 링크하고 네비게이션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1항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단일 레코드 디스플레이로부터 그 레코드에 제공된 모든 관계들(relationships) 사이에 네비게이션 할 수 있게 하라'고 제안하며, 그 같은 네비게이션은 서지 레코드에서 서지 레코드로, 서지 레코드에서 전거 레코드로, 전거 레코드에서 전거 레코드로, 전거 레코드에서 서지 레코드로, 계층구조로 된 파일 내에서(즉, 트리 관계에서) 계층에서 계층으로, 그리고 ...에 관한 저작과 ...에 의한 저작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여러 <그림>들에서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OPAC 화면에서는 몇 개의 필드 데이터가 다른 색으로 구별되어 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한 필드 정보는 원래는 연관된 레코드로의 하이퍼링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에서 American folklore의 표제/저작사항에서 저작사항(edited by Tristram Coffin, III), 발행사항에서 발행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총서사항(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분류기호 및 자료 이용하는 곳은 자주색으로 다른 데이터와

구별되어 있다. 이전에 총서사항을 클릭 했을 때 동일한 총서에 속하는 12건의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었다(2006.2.8). 그러나 현재의 목록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하이퍼링크를 표시하는 방법 및 링크의 제공 대상이다. 표제/저작사항에서 저작사항(245 필드 \$c) 전체를 다른 색으로 구별하고자 했다면 지금과 같이 'edited by Tristram Coffin, III'가 전부 다른 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름만을 그 대상으로 했다면 edited by와 같은 기능어를 제외한 'Tristram Coffin, III'이 다른 색으로 나타내려야 할 것이다.

<그림 8>과 <그림 9>의 LC 서지 레코드들에서도 Coffin Tristram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표제/저작사항(245 필드)에서가 아니라, 개인명 표목(100 필드)에서 링크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간략 레코드에서는 표목과 청구기호에서만 링크를 제공하는 한편, 완전 레코드에서는 개인명 표목, 관련된 이름, 주제, 청구기호에서 링크를 제공하는데, 이들은 전거 제어된 형태의 이름과 주제명들이다.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은 또한 목록 외부에 있는 정보로 링크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7.8). 여기에서 말하는 목록 외부 정보는 예를 들어, 주소, 상태, 개관시간, 특정한 자료가 소재한 곳과 같이 도서관에 관한 정보, URL을 통한 웹 자원 링크, 전자저널로부터 목차 페이지로 링크, 목차 페이지로부터 전문 논문 링크, 다른 도서관 목록 링크, 지역사회 정보 링크, 표제지의 전문(full-text) 이미지, 목차에 대한 링크 등을 말한다. 필요하다면 이 같이 목록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링크

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필요성과 더불어 그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하고, 목록 화면 구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전체 화면의 구성

앞 절에서 언급한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이 기반한 세 가지 원칙들 가운데 'B. 내용과 배열 원칙'은 OPAC의 내용과 배열이 '이후의 행동을 취하는 데 요구되고 필요한 것을 디스플레이 하고(5조), 여러 개의 레코드들이 검색되었을 때 무작위한 순서보다는 의미 있는 순서로 레코드들을 디스플레이 하며(6조), 디스플레이 된 정보로부터 관련된 정보로 네비게이션을 지원할 것(7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후의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목록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정보가 그 안에서 주어지는가가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화면의 구성 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과 비교할 때 LC OPAC이 갖는 특징은 목록의 화면을 전적으로 목록과 관련된 탐색 행위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5>의 기본탐색 화면 상단은 미국의회도서관 홈페이지(<http://www.loc.gov>)와 미국의회도서관 전거 데이터베이스(<http://authority.loc.gov>)로의 링크 및 미국의회도서관 온라인목록(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로고가 배치되어 있다. 상단 메뉴 바는 도움말(Help), 새로운 탐색(New Search), 탐색 이력(Search History), 표목 리스트(Headings List), 표제 리스트(Titles List), 자료요청(Request an Item), 계정상태(Account Status), 기타 데이터베이

스(Other Databases), 다시 시작(Start Over)의 9개 버튼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 화면은 전적으로 탐색, 열거, 디스플레이와 같은 목록의 고유한 활동에만 할당이 되어 있다.

검색화면 아래와 위에 반복되어 있는 'Previous'와 'Next' 버튼에 커서를 대면 각각 '이전 화면 혹은 레코드(Previous Screen or Record)', '다음 화면 혹은 레코드(Next Screen or Record)'라는 설명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7>의 간략 디스플레이는 '레코드 정렬(Resort Results By)' 옵션과 '검색 결과 내 제한(Add Limits to Search Results)' 창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간략 디스플레이 및 서지 레코드 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탐색대상인 데이터베이스 명(DATABASE: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검색질의어(YOU SEARCHED: Author/Creator Browse = coffin, tristram), 검색 결과의 디스플레이 내용(SEARCH RESULTS: Displaying 1 through 25 of 25(간략목록) 혹은 Displaying 18 of 24(서지레코드))이 항상 표기되어 있다. 서지 레코드의 하단에서는 해당 레코드를 저장, 인쇄 혹은 이메일 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며, 다운로드 할 때 텍스트(간략 정보 혹은 완전정보), MARC(non-Unicode/MARC-8) 혹은 MARC(Unicode/UTF-8)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화면 구성의 적절성은 사실상 이용자의 목록 이용 행태의 흐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략목록에 도달한 이용자가 어떤 행동을 그 다음에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한 자료에 대해 간략목록에 주어진 데이터 이상의 상세한 서지정보를 보기 위해 레코드를 선택할 것인가? 새로운 탐색을 위해 상단의 메

뉴 바에서 'New Search'를 클릭해 검색화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자 데이터베이스로 가기 위해 'Library of Congress Authority' 링크를 택할 것인가? 이 같은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화면 구성의 적절성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찾기' 및 후속 행위에 따른 화면은 매우 <그림 1>에서 보는 이전의 검색화면은 상단 메뉴바에 도서관이용, 자료찾기, 도서관서비스, 열린마당, 공개자료실, DB소개, 도서관소식, 도서관소개 버튼 및 시각장애인용 버튼을 배치하고 있다. 화면 왼쪽에는 '자료찾기'의 서브메뉴 리스트와 더불어 한국문헌번호센터, 한국문헌자동화목록, 사서직교육훈련, 국가서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있다. 오른쪽에는 '바로가기'로서 맞춤정보서비스, 자료복사서비스, 야간도서관서비스, 비치희망신청, 원문정보DB, 민원소리, 자료제출(납본), 디지털자료실예약 옵션 리스트 및 국제심포지엄, 홈페이지내 정보찾기, 뷰어다운로드 링크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가 화면을 채우고 있으므로 검색창은 포위된 형국이었고, 이 같은 화면 구성은 간략목록 및 개별 서지레코드 디스플레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간략찾기' 화면에서 검색어 입력창 위에는 '층별자료실안내', '이미지뷰어내려받기' 버튼이 그래픽아이콘과 함께 주어지고, 다국어입력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은 검색, 다시쓰기, 비치희망신청 및 바꾸니보기의 네 개 버튼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전의 서지레코드 화면 역시 양쪽에 메뉴 리스트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림 2>의 새로운 '간략찾기' 화면과 <그림 4>의 간략목록에서는 오른쪽의 '바로가기' 메

뉴가 없어졌으나, 서지 레코드 화면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 '바로가기' 메뉴는 화면의 메인 네비게이션 바가 움직일 때 함께 위아래로 움직인다. 간략목록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두 열 두 개의 필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정보를 수용하면서 문자 그대로 '응색한' 모양과 느낌(look and feel)을 주고 있다.

이처럼 화면을 꼭 채운 각종 버튼, 옵션들이 목록에서 특정한 탐색단계에 있는 이용자가 과연 어떤 행동을 다음에 취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배치된 것인지 의문이다. '간략목록'에 도달한 이용자가 상단 메뉴의 '도서관소개'나 '도서관소식'을 선택하거나,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사서직교육훈련'이나 '국가서지'로 찾아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보다 순수한 의미의 목록 탐색활동을 위해 화면 전체가 할애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필요한 화면 구성 원칙이 아닐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4>의 간략목록 상단에 '간략찾기'의 검색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로 새로운 탐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현재의 검색 결과 내 탐색을 재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편리할 수도 있으나, 화면에 볼 수 있는, 혹은 보아야 하는 실제 서지정보에 할당되는 면적을 매우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그림 10>의 서지레코드 화면에서는 더 이상 검색질의어를 보여 주지 않아, 이 레코드가 어떤 탐색의 결과로 디스플레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LC의 OPAC이 간략목록 및 서지 레코드의 왼쪽 상단에 탐색대상 데이터베이스 명, 검색질의어, 검색결과 등의 디스플레이 내용을 일관성 있게 표시해 주

어, 특정한 디스플레이가 탐색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로 도달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것은 또한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1.2항에서 'OPAC에서 모든 디스플레이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현재 디스플레이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자기가 취한 단계를 되짚어가는지, 계속적 행동이나 디스플레이의 옵션, 및 언제든 어떻게 진행할지를 명백하게 하라'는 내용을 참조해야 할 사항이다.

6.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OPAC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기본탐색' 화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두 국가대표도서관들의 OPAC 디스플레이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자료를 찾고, 식별하고, 선택하며, 입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하는가에 주목하였다. '기본탐색'에서 coffin과 coffin, tristram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저자명을 갖고 탐색을 수행하여, 비교한 결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OPAC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났다:

- '간략찾기' 검색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색인 제한을 허용하지 않음
- 도서관 소장이 분명한 자료에 대한 저자명 키워드 검색에 실패함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움말'을 제공하지 않음
- 디폴트 키워드 탐색에서 복수의 표목에

- 일치해도, 표목을 디스플레이 하지 않음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너무 많은 필드를 제공함: 열두 개 필드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레코드의 검색 근거를 표시해 주지 않음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이용자의 레코드 정렬을 허용하지 않음
- 간략서지와 완전서지를 구별하지 않음
- 목록 메뉴, 검색 옵션 및 서지 레코드 필드 명칭 등에 도서관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함
- 서지 레코드에서 이름 표목과 주제 표목을 보여주지 않음
- 서지 레코드에서 목록 내에 이름, 주제, 표제 등으로 관련된 서지 레코드들로 적절히 링크하지 못함
- 검색 전 과정의 화면에서 목록과 직접 관련된 기능 및 옵션에 할애된 공간이 매우 적음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상기한 특성들은 LC OPAC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대체로 IFLA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권장사항들과 일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기본적 서지 요소들을 간략히 보임: 네 개의 필드만 제공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레코드의 검색 근거 혹은 데이터 요소내의 출처를 표시해 줌
- 간략 디스플레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레코드 정렬을 허용함
- 간략서지와 완전서지를 구별하여 제시함
- 목록 메뉴, 검색 옵션 및 서지 레코드 필드 명칭 등에 비교적 평이한 용어를 사용함.

- 그러나 소수의 도서관 전문용어를 포함함
- 검색의 전 과정의 화면에서 탐색대상 데이터베이스 명, 검색질의어, 검색결과와 디스플레이 내용을 보여줌
 - 서지 레코드에서 목록 내에 전거제어된 이름, 주제, 표제표목 등으로 관련된 서지 레코드들로 적절히 링크함
 - 검색 전 과정의 화면에서 목록과 직접 관련된 기능 및 옵션에 대부분의 공간을 할애함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매우 제한된 것들이다. 실제로는 '상세찾기' 탐색의 효율성, 주제탐색의 적합성, 전거제어 및 서지 레코드의 품질제어 등 OPAC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영역들이 있고, 그것들은 차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Byrum은 국가대표 서지기관, 즉, 국가대표 도서관들은 현재 정보자원의 레코드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는 데이터베이스와 서지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고, 새로운 세대의 OPAC은 최근의 웹 검색 엔진과 온라인 서점이 갖는 표준적 기능에 바탕을 둔, 상당히 개선된 기능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Byrum 2005). 본 연구에서 관찰된 특성들은 이 같이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일반이용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국립중앙도서관 OPAC의 '국가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앞 절의 분석사항에서 아울러 지적한 것처럼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의 권장사항들을 참조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매우 다행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IFLA에서 2005년 공개한 이 지침의 최종권장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안'이 2005년 확정되면서 권장사항들의 항목이나 내용이 그동안 있었던 국제적 리뷰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이 특정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도서관계에서 여러 해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한 권장사항들을 통해 특정한 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의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 안에서는 용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서은경. 2000. OPAC 시스템의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187-206.
 서은경. 1999. 정보검색 시스템에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분석적 고찰. 『정

보관리학회지』, 16(4): 125-150.
 이제환. 1999. 대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품질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 1-29.
 이제환, 이현주. 1998. OPAC 이용자 인터페이

- 스의 품질평가: SOLARS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1): 69-96.
- Ayres, F.H., Nielsen, L.P.S., and Ridley, M.J. 1998. *The Bradford OPAC2(BOPAC2): Managing and Displaying Retrievals from a Distributed Search in Z39.50*.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Centre.(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Report: 103)
<http://www.comp.brad.ac.uk/~bopac2/report/> <Online> <Access 2005.7.11>
- Breeding, Marshall. 2004. "Integrated Library Software: A Guide to Multiusers, Multifunction System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0(1): 1-88.
- Byrum, John D., Jr. 2005. "Recommendations for Urgently Needed Improvement of OPAC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Bibliographic Agency in Achieving It."
 <<http://www.ifla.org/IV/ifla71/papers/124e-Byrum.pdf>> <Online> <Access 2005.11.22>
- Cherry, Joan M. 1998. "Bibliographic Displays in OPACs and Web Catalogs: How Well Do They Comply with Display Guideline?"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17(3): 124-137,
- Cherry, Joan M. 1992. "Improving Subject Access in OPACs: An Exploratory Study of Conversion of Users' Quer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8(2): 95-99.
- Cherry, Joan M., Williamson, Nancy J., Jones-Simmons, Carol R., and Cu, Sin. 1994. "OPACs in Twelve Canadian Academic Libraries: An Evaluation of Functional Capabilities and Interface Featur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13(3): 174-196.
- Cousins, Shirley Anne. 1997. "COPAC: The New National OPAC Service Based on the CURL Database." *Program*, 31(1).
- Fritz, Deborah A., and Fritz, Richard J. 2003. *MARC21 for Everyone: A Practical Guid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2003.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OPAC) Displays [Draft]: September 30, 2003 Draft for Worldwide Review*. <Online> <Access 2005.5.5>
 <<http://www.ifla.org/VII/s13/guide/opacguide03.pdf>>
- Jurewicz, Lynn, and Cutler, Todd. 2003. High Tech, *High Touch: Library Customer Service through Technolog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Luk, Annie T. 1996. *Evaluating Bibliographic Display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 Focus Group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Faculty of Informa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 Rathje, Bente Dahl, McGrory, Margaret, Pollitt,

- Carol, and Vuoltilainen, Paivi. 2005. "Designing and Building Integrated Digital Library Systems -- Guidelines." IFLA Professional Report 9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http://ifla.org/VII/s31/pub/Profrep90.pdf>> <Online> <Access 2005.11.23>
- Rubin, Richard E. 2000.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 Tillett, Barbara B. 1991 "Taxonomy of Bibliographic Relationships."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35(April 1991): 150-158.
- Wilson, A. Paula. 2004. *Library Web Sites: Creating Online Collections and Servic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Yee, Martha M. 1998.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Prepared for the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Online> <Access 2005.5.5>
<<http://www.ifla.org/IV/ifla65/papers/098-131e.htm>>
- Yee, Martha M. and Layne, Sara Shatford. 1998. *Improving Online Public Access Catalog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